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

김현주, 송후승*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troductory Clinical Practice

Hyun-Ju Kim, Hoo-Seung Song*
Division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의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U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중 임상입문실습을 마친 8명을 대상으로 하여 포커스 그룹 토론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실습의 전반적인 과정 중에 겪은 상황과 환경,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은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41개의 주제와 17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인 '걱정과 기대가 함께 함', '병원이 현실로 다가옴', '감정의 혼재 끝에 적응함', '되어감의 첫 단계', '미래를 준비함'으로 구성되었고, 도출된 범주는 실습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다. 연구결과 밝혀진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은 기대와 걱정되는 상태에서 실습을 시작하여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경험하면서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본질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연구는 1,000시간 이상 시행되어야 하는 임상실습의 시작 시점에서 시행되었으므로 그 결과는 앞으로 이루어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실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over the meaning and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troductory clinical practice. The participants were eight nursing students who had carried out the introductory clinical practice at a hospita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15 2019 to July 31, 2019 through focus group discussions an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using non-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The introductory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was categorized as followed: 'Feel worried and concern about expectations at the same time', 'Hospital experience as reality', 'Becoming accustomed to complexed emotion's, 'The first step of becoming a nurse',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e five categories were expanded in the same context according to tim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clinical introductory practice experiences of the nursing students revealed by the study is that they begin to practice feeling worried and concerned about expectations, and concern about experience and adaption to various situations, emotions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alistic and effective education program before starting clinical practice

Keywords : Introductory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Category, Phenomenologica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Hoo-Seung Song(Choonhae College)

email: sbingo24@ch.ac.kr

Received October 16, 2019

Accepted February 7, 2020

Revised November 26, 2019

Published February 29,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의료상황에 따라 사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량 있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1]. 간호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중심의 학문이므로 교과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간호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수행을 익혀야하며, 간호지식 습득을 위한 이론교육과 간호 수행의 적용을 위한 임상실습이 균형을 이룰 때 전문성을 함양한 간호사 배출을 위한 교육의 질적인 완성이 이루어진 다 하겠다.

임상실습은 이론적으로 습득한 내용을 간호현장에 적용하여 간호술기와 비판적 사고, 분석적 기술 등을 익히며,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자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2,3,4,5].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어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며 미래의 역량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4,6,7].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임상실습의 기준을 전 교과과정 동안 학생 1인당 1,000 시간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으며[8],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배치 시간과 구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및 관리 능력과 임상실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간호대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창의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3,9,10]. 그러나 대학 내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리 실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은 임상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이해와 응대, 의료인으로서의 태도, 관련 부서와의 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상자의 요구 증가, 실습의 충실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내용이 더 많아짐에 따른 부담감 등은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가 가중됨을 짐작케 한다.

정규 교과과정 내에 지정된 실습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최근 간호학과 신설 및 증설로 인해 교과과정에 맞는 체계적 실습기관 확보가 어렵게 됨으로써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지식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2,11].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실습현장의 규칙에 적응하고 주어진 실습과제를 수행하면서 간호대상자들과 교류해야 하며[12], 제한된 실습내용, 권위적인 현장 분위기나 간호대상자로부터의 거부로 인한 위축감, 안정적이지 않은 실습환경, 단순 업무의 반복, 과중

한 부담감 등을 경험하는데[13,14], 실습 중의 스트레스는 결국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신념 및 태도형성, 역량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3]. 뿐만 아니라 2004년 시작한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실습 기관과 지도자를 정하고 있고, 지속적인 산학 교류를 통해 실습 지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실습지의 다양화로 인해 지도와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실습 교육의 질적 유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나 올바른 간호관 확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미래의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실습 초기의 부담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교내 수업에서 임상실습으로의 전환 시 겪게 될 학습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입문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입문실습은 간호대학생의 교과목별 임상실습에 앞서 실습기관의 환경과 대상자, 간호업무를 포괄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으로, 낯선 기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부담감을 감소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은 앞으로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간호직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습의 질적인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경험한 스트레스와 유발요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정서 등에 대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며[11,15,16] 실습을 위한 준비나 초기적응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의 경험을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에 적합한 중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임상실습 적응력을 키우고 올바른 간호관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실습 적응력과 긍정적인 간호직 가치관 배양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을 확인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기 위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U광역시 소재의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임상입문실습 2주의 과정을 마친 3학년 학생 중 임상실습 과정에서 가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2019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포커스 그룹과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참여자 보호를 위해 연구자의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일반적으로 6~10명으로 운영되므로[17] 간호대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강의실에서 연구자 2인의 진행 하에 70분가량의 토론 시간이 소요되었다. 토론이 끝난 후 포커스 그룹 중 심층면담에 동의한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하였고, 총 1회에서 3회까지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강의실, 카페 등 면담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1회 약 30~40분 동안 진술의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내용의 녹음과 더불어 현장 기록 노트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태도나 표정, 분위기를 메모하였고, 면담 종료 후 즉시 녹음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임상입문경험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도입질문을 시작으로 점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감으로써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면담 시 이루어진 주요 질문은 “임상실습 동안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실습을 하는 동안 느낌은 어떠하였는가?”, “그럴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이다. 추가 면담에서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도출한 주제와 어휘에 담긴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1.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4386-A-2019-013)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을 위한 포커스 그룹 토론과 심층면담 내용은 녹음을 하면서 진행될 것이며, 분석된 내용을 연구물로 출판할 것과 참여하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 학문적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이후 분쇄 방법으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진행 중이라도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1.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Colaizzi(1978)[18]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19].

2.1.5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20]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중 2명에게 분석 내용을 읽어주었고, 본인이 진술한 임상입문실습 경험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자료가 포화되어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분석한 의미에 관하여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임상입문실습에 대한 자신의 가정, 편견, 선 이해 등을 고려하여, 면담 내용을 들으면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진행이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2.2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 218개를 87개의 의미구성으로 분석하고 41개의 주제를 선정한 후 17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임상입문실습 경험의 5개 범주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함’,

Table 1. The experience in clinical introductory practice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Scared and trembled for harm the patient	Worried that I can do well	Feel worried and expectation at the same time
Worried about new relationships		
Vague expectation	Expected an unknown place	
Want to apply what I have learned		
Want to experience a lot	Experience specifically	
Disappointed of hospital's situation and environment		
Experience ward directly	Linked to theory and practice	Experienced hospital as reality
Anxious about getting infected		
Confirm what I learned	Empathy with patients	
Experience a systematic nursing field		
Feel sorry for patients	See the dynamics of life	
Think of a better way		
Experience the sudden death	Limitation of experiences	
Meet a unexpected situation		
Unable to do all nursing activities as a student	Shrink	Accustomed to complexed emotion
Shrink for sorry		
Feel a burden	Have a self-esteem	
Unable to ask because I am scared		
feel of being a professional	Get a hope	
Seem to be become an important person		
Become a member of medical staff	See a busy and hard working nurse	
Relax in mind		
Have a confidence	Create a role model	The first step of becoming a nurse
Realize that a nurse is a great job		
See the difference between ideal and real care	Take a bad example	
Understand the job as a nurse		
Feel regret for nurse's reality	Expect future image	
Have nurses I want to learn from them		
Share the know-how	Reflect oneself	Prepare for the future
Think about the concept of nursing		
A nurse who is struck in a habitual routine	Be motivated	
Nurses do not do what they learned		
Think nurse's job is hard and in-demanding work	Effort and action	
Empathy to new nurses		
Guess rewarding		
Be angry at immaturity		
Feel accomplishment		
Think I should practice with responsibility		
Hope to be a splendid nurse		
Prepare for next practice		
Plan for better future		

‘병원이 현실로 다가옴’, ‘감정의 혼재 끝에 적응함’, ‘되어감의 첫 단계’, ‘미래를 준비함’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2.2.1 임상입문실습 경험의 범주와 주제모음

범주 1: 걱정과 기대가 함께 함

1)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함

실습 전 참여자들은 자신이 환자가 아닌 병원의 구성원이 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긴장감을 느꼈다. 아직은 배움의 단계에 있는 상태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신의 모름으로 인해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간호

사나 병원 직원들과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생각에 실습 날짜가 다가올수록 무섭고 떨리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병원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일부로 간 거 같아요. 병원의 환자뿐만 아니라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르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진짜 거의 못자고...”

2) 모르는 곳이 기대됨

참여자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한 막연한 설렘을 경험하였다. 실무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바람과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간호

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뚝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환자가 있을까... 어떤 수행을 하게 될까, 환자랑 정말 이야기를 잘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또 여기가 내가 나중에 일할 곳이다. 이러면서 또 웬지 내가 여기에 오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범주 2: 병원이 현실로 다가옴

1) 구체적으로 경험함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수행되는 치료와 간호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다양한 질병의 환자와 병원의 현실을 경험하였다. 물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병동의 시스템,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환자의 반응을 겪었고, 병원 환경에 노출되면서 혹시 자신이 감염이 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실로 크게 다가왔다고 하였다.

“병원 가서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소독약 냄새, 대변 냄새, 식사 냄새랑 이런 것들이 섞이니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거 같은 거예요.”

2) 이론과 실재가 연결됨

참여자들은 실습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배운 것이 이해되었으며, 지식이 실재와 맞춰지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이상으로만 생각했던 간호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과 적응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파킨슨 환자의 알약 굴리듯이 하는 그 모습이 책으로는 어떤 건지 도저히 몰랐는데 실습 나갔을 때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딱 보니까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3) 환자에게 공감하게 됨

참여자들은 실습이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관심이 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대상자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퇴원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엄청 부듯했었고,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간호사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간호사 입장에서 이해되기보다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에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건가 하고.”

4) 삶의 역동성을 봄

참여자들은 회복되는 대상자를 통해 희망을 보았고, 짧은 기간 동안 대상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상황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병동 내에서 본인의 요구만을 강조하며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등 삶의 다각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아침까지도 좋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분이 사망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있었던 환자가 안 계시는 게 무섭고,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겁이 나고, 충격이 커가지고, 그 날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범주 3: 감정의 혼재 끝의 적응함

1) 경험의 한계

참여자들은 간호대학생이 실습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활력징후를 수행했고, 그 외의 간호술은 관찰만 해야 했으나 그나마 대상자나 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관찰의 기회조차 적어지기도 하였다.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실습과는 조금 다르게 바이탈만, 진짜 딱 바이탈만 했어요. 그리고는 관찰인데 액팅 선생님들이 다른 걸 하시거나 하면 저희는 이제 계속 서 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뭔가 저희한테 이런 이런 거를 해라 하면 뭘 딱 찾아서 했을 텐데 저희는 진짜 서 있 어가지고, 생각과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2) 위축됨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간호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다. 바쁘게 일하는 중에 질문하기가 미안하고 겁이 났고, 보고 싶은 수행이 있지만 눈치를 보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선생님 힘든 게 보이는데,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스스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바쁘고

내가 보면 부담스러울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 안 보는 척,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미안해요.”

3) 자존감이 생김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이 기뻐했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이 세세한 부분을 챙겨줌에 감사했고 작은 칭찬에도 인정받는 느낌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원칙대로 하는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제가 혈압을 잴어요, 근데 어? 왜 이렇게 높지 하면서 기계로 잴 때 비슷하게 나오면 정말 부듯했어요. 진짜 내가 한 것들이 증명이 됐을 때 그 때가 좀 부듯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간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환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제가 saturation을 재면, 뭔가 전문인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4) 희망이 보임

실습 전 가지고 있던 걱정이나 불안감이 점차 자신감과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이 되었고,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면서 앞으로의 실습이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실습이 1년 남았는데,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고만 안 친다면 정말 하루가 시간은 빨리 가겠다. 관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계속 보고,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일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더 열심히 보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그 2주가 조금 더 재미있었고 그랬던 건 있는 거 같아요.”

범주 4: 되어감의 첫 단계

1)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봄

참여자들이 실습현장에서 본 간호사는 생각보다 훨씬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이상적인 간호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수행뿐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고 세세한 일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간호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현실이 이해되고 자신을 챙기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제가 따라 다니던 신규 선생님이 있었는데 환자가 수술 후 Hemovac을 달고 나왔는데 환자분이 어떻게 하다가 빠져가지고 피가 흘렀는데, 선생님도 피가 손에 다 묻었는데, 환자를 처치하는 게 급한 거는 알겠는데, 자기도 중요한데, 난 내가 중요한데, 선생님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깐 손도 씻지 않고 하는 거예요.”

2) 롤모델이 생김

참여자들은 간호사들의 능숙한 수행능력과 대상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보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간호사는 멋있어 보이고 배우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어떤 선생님은 하나하나 터치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저 간호사한테 일 배우고 싶다, 저런 간호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의식이 좀 훈민하거나 하는 환자들한테도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서 하는 걸 봤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 간호사는 진짜 마음으로 간호를 하고 있고 환자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 반면교사로 삼음

참여자들은 타성에 젖었다고 판단되거나 자신이 배웠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간호사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을 거울삼아 그들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배우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총격을 좀 받았던 게 검사 도중 환자는 힘들어보였고, 그 환자 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바뀐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나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진짜 환자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4) 미래의 내 모습을 봄

참여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바쁘고 긴장된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간호사라는 직업은 힘든 일임을 인식하였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곧 다가올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키게 되어 겁이 나고 안타까운 감정을 가진 반면 일을 통해 짐작되는 보람,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

고 하였다.

“저에게 있어 첫 실습은 거울 같았어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았어요. 신규선생님이 주사 놓고 나서는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안 되면 등에서 땀이 짝 난데요. 환자분에게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같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범주 5: 미래를 준비함

1) 자신을 돌아봄

참여자들은 실습 중에 지식이나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 기술이 어설플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미숙함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대상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실습에 대한 재미를 동시에 느끼기도 하였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부족한 점 등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었다.

“첫날에 선생님께서 BST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도 잘 보이고 싶고, 같이 실습하는 애들한테도 애들이 짝 서 있는데 그래서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번 했는데도 피가 안 나오니깐 손이 더 떨리고 저도 모르게 ‘저 못하겠어요’하고 빠져나왔어요.”

2) 동기부여가 됨

참여자들은 좀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욕구와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다음 실습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 멋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학습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의학용어를 하나도 몰라서 인수인계 시간에 저도 한글 말로 막 적었어요. 밤에 공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동기 부여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그랬어요.”

3) 노력하고 실천함

참여자들은 실습을 경험하면서 다음 실습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습 시의 행동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앞으로의 실습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실습 나가기 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도 들었구요. 실습 나갔을 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공부를 우선 많이 하고 나가서 보는 게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실습에서는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다음번 실습에는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많이 공부해 가서 당당하게 실습하고, 좀 더 배웠으니 전문가의 맘을 좀 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2.2 임상입문실습의 본질적 구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 되었다. 간호대학생은 기대와 걱정되는 상태에서 실습을 시작하여 실제의 병원을 현실로 만나게 되었고,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경험하면서 점차 병원에 적응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간호사의 업무와 위치를 알게 되고 미래의 자신을 보게 되었으며 간호사가 되는 첫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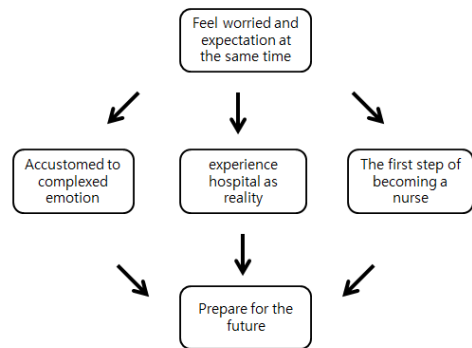


Fig. 1. Essential structure of clinical introductory practice

3. 결론

3.1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여 임상실습 적응력 향상과 긍정적인 간호직 가치관 배양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함’으로 학생들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함’, ‘모르는 곳이 기대됨’의 상반되

는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실습을 시작하였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병원이라는 환경과 짐작만으로 생각한 실습생의 역할 및 위치, 이전에 환자로서 경험했던 병원의 무거운 이미지, 이제는 환자가 아닌 병원의 구성원이 된다는 책임감으로 인한 긴장감 등으로 인해 실습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졌다고 하였다. 이는 실습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론 과정이 진행 중인 학년으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로 선배나 타 학교 학생을 통해 얻게 된 실습에 대한 정보가[14] 긍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이와 함께 배운 것을 적용하는데 대한 기대와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 무엇이든 많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기대감 또한 경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설렘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경험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데[14], 실습 중 경험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은 긍정적으로 전환한다면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실습기관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습에 대한 진입권을 줄여야 하겠다.

두 번째 범주는 '병원이 현실로 다가옴'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함', '환자에게 공감함', '이론과 실체가 연결됨', '삶의 역동성을 봄'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실습에 적응하는 과정 중 상상으로만 가져왔던 병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이상이 아닌 현실 그 자체로서의 병원을 보게 되었다. 병원 특유의 위계적 분위기와 냄새 등의 환경은 먼저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병원이 배운 것만큼 철저히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손씻기와 보호장구 착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균술 등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웠는데[14] 이론과 실무의 연계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간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 판단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웠던 지식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병원 환경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의 병원을 받아들이면서 이곳이 병원이고 자신이 적응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동안 각자의 상황을 이해함으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맞추어 가게 된다[21].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나 관계, 학생의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실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실습을 지도하는 교수는 사례적용이나 과제 확인, 현장실습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 뿐 아니라[12,22]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다.

세 번째 범주는 '감정의 혼재 끝에 적응함'으로 학생들은 '경험의 한계', '위축됨', '자존감이 생김', '희망이 보임'의 다양한 감정을 겪으면서 차츰 병원에 적응하게 되었다. 실습 중 활력징후 측정과 환자 이송 등의 단순 업무가 학생들의 주된 역할이었고 간호술은 주로 관찰하는 입장으로 그나마 대상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내용과 역할 한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는데[12,14], 이는 최근 정보의 대중화로 인해 대상자들도 의료에 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권리 주장이 증가하면서 간호대학생에게 수행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습 환경에 따른 문제도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습 병원마다 학생에게 허용하는 역할 범위의 차이가 있어 학생들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대치가 달라지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허용되는 역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실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역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짓고 표준화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역할의 한계로 인한 무력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간호대학생은 실습 시에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위축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함으로써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3].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뿌듯함과 전문성,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작은 일에도 인정받는다는 느낌과 병동 내에서의 소속감은 실습 초기에 가졌던 불안감을 상쇄시키면서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었고 간호사가 되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실습적용이 실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역할이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된다[21]. 실제로 학생

들은 복잡한 상황을 통해 느끼는 상반되는 감정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점차 실습기관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범주는 '되어감의 첫 단계'로 학생들은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봄', '롤모델이 생김', '반면교사로 삼음', '미래의 내 모습을 봄'의 과정을 통해 간호사라는 현실에 자신을 대입하며 이미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만난 간호사의 모습은 항상 바쁘고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숙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내적,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방면의 업무를 다 소화하면서도 자신을 챙기기보다 환자가 우선시되는 간호사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었다. 또한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간호사의 모습은 스스로 배워야 할 부분과 기피해야 할 자제 등을 인지하게 하였고 간호의 개념을 다시금 정립하게 하였다. 또 학생들은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자신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위축되어 있는 신규간호사를 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고, 간호사는 힘든 일이지만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다. 실습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태도,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미리 학습한다[24]. 특히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임상입문실습에서는 간호사의 모습이 학생의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지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간호직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범주인 '미래를 준비함'은 '자신을 돌아봄', '동기부여가 됨', '노력하고 실천함'의 과정으로, 학생들은 다가올 실습을 위한 노력과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지식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스스로의 미숙함을 깨달았고, 발전된 모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임상입문실습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실습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으며 다음 실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다. Oh 등의 연구[14]에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 중 자신의 미숙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숙해지고, 간호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현장 적응력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질환에 대한

지식이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동료와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혹시나 받게 될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술이나 처치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그 외 노력의 일환으로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놓고 필요할 때 빨리 가져가거나, 인간관계에서도 어색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과제가 실습 중의 부담과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하지만[11,14]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하는 학습은 효율성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습 및 과제 내용에 대한 숙고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은 처음하게 되는 실습을 걱정과 기대로 시작하였고, 실습과정을 지나면서 다시 시작될 실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실습내용의 수행은 물론이고, 학생으로서의 한계, 걱정, 위축됨, 자존감, 희망 등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포괄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습을 채워가고 있었다. 강(2016)의 연구[21]에서 임상실습적응은 학생들이 실습지의 특성을 알아내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면서 낯선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보람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는데, 24주 이상의 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 힘든 과정을 겪은 후 자기 성장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맥락 상 유사함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킴으로써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실습을 시작하는 시기의 경험은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력과 대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 실습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밝혀 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교과목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시점의 경험이라는 점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 외에 기대와 설렘, 인정받는 느낌, 자존감, 뿌듯함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상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에게 여러 가지 감정 노동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시도

되어 왔다[16,25].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필요성이 분명한 만큼 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재고가 필요하다. 임상입문실습 시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는 자신의 역할이나 실력을 인정받았거나 소속감을 느꼈을 때, 대상자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등 간호대학생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실습환경이나 주변인과 관련된 상황도 포함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의 역할 범위를 규정하고,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실습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도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실습적응력과 긍정적인 간호직 가치관 배양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U광역시 소재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임상입문실습을 마친 8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과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 경험은 '기대와 걱정이 함께 함', '병원이 현실로 다가옴', '감정의 혼재 끝에 적응함', '되어감의 첫 단계', '미래를 준비함'의 5개 범주로 구조화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임상입문실습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입문실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1] Y. H. Kang, M. J. Hong,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sty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 5, 2841-2853, 2014
- [2]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 2, 251-264, 2013.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3] Locken, T., & Norbrg, H. Reduced anxiety improves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rough utilization of mentoring triad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8, 1, 17-23, 2005.
- [4] J. W. Park, N. 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1, 27-35, 2003.
- [5] Lofmark, A., & Wikbad, K. Facilitating and obstructing factors for development of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studen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 43-50, 2001. DOI:<http://doi.org/10.1046/j.1365-2648.2001.3411739.x>
- [6] J. J. Y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9, 64-72, 2003.
- [7] J. Yoon, K. J. Kim, M. S. Choi, The effects on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y Society*, 19, 2, 273-284, 2013.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73>
- [8]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4, <http://www.kabone.or.kr/>, Retrieved April, 2019.
- [9] K. A. Song, H. J. Park, H. A. Yeom, J. E. Lee, G. E. Joo, H. J. Kim,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educational program, 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for third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 3, 322-333, 2012. DOI:<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22>
- [10] J. S. Kwon, Y. M. Seo,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8, 1, 25-33, 2012.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25>
- [11] A. K. Lee, H. S. You,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1, 2, 154-163, 2015. DOI:<http://dx.doi.org/10.1111/jkana.2015.21.2.154>
- [12] S. M.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ctiveness in clinical education.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4, 1, 32-36, 2017. DOI:<http://dx.doi.org/10.16952/pns.2017.14.1.32>
- [13]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 12, 417-426, 2014.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1] Y. H. Kang, M. J. Hong,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14] D. N. Oh, Y. R. Um, C. M. Kim, S. J. Ju, J. H. Choi, M. S. Park, The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 4, 430-440, 2016.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430>

[15] Y. K. Hong, Y. H. Kim, H. M. Son, Effect of nurses'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2, 4, 323-331, 2016.
DOI:<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4.323>

[16] E. Y. Kim, S. H. Ya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1, 4, 417-425, 2015.
DOI:<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17>

[17] Morgan, D. L., & Krueger, R. A. Focus group (Shin, K. R., Chang, Y. J., KIM, Y. K., Lee, K. J., Choi, M. M., Kim, H. Y., Kim, O. H., & Kim, T. H. Trans) Seoul: Hyunmoonsa, 2004.

[18] Colaizzi, P. E.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S. & King, M.(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9] K. R. Shin, M. O. Cho, J. H. Yang, *The Methods of Qualitative Research*,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Seoul, 2004, 251-252.

[20] Lincoln, Y. S. & Guba, E. G.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103-127.

[21] S. Y. Kang,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1, 9-19, 2016.

[22] Ridder JM M., Stokking K. M., & MaGaghie W. C. What is feedback in clinical education?. *Medical Education*, 42, 189-197, 2008.
DOI:<http://doi.org/10.1111/j.1365-2923.2007.02973.x>

[23] M. R. Song, I. K. Kim, Y. K. .Kim,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faculty and nurse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11, 2, 106-118, 2010.

[24] H. K. Hyoung, Y. S. Ju, S. I. Im,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 4, 394-404, 2014.
DOI:<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4.394>

[25] Y. G. Noh,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 5, 461-470, 2017.
DOI:<https://doi.org/10.11111/jkana.2017.23.5.461>

김 현 주(Hun-Ju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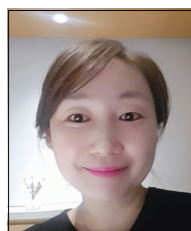
- 2010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송 후 승(Hoo-Seung S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노인간호